

Artist's Statement

김하얀

김하얀은 금속을 중심으로 공예가 지닌 시간성과 과정성을 탐구한다. 재료가 변화하고 시간이 축적되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며,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적 과정이 아닌 '기예'라는 근본적 태도에서 작업을 출발시킨다. 반복을 통해 축적되는 감각, 몸이 기억하는 리듬, 그리고 오랜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미세한 차이를 통해 공예를 물질이 아닌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라본다.

작업 전반에는 축적, 흐름, 결, 층위, 기억된 감각과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공예를 하나의 제작 행위로 보기보다, 오랜 시간 훈련된 몸의 감각과 재료가 함께 만들어내는 지층 구조로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은 작은 브로치부터 일상 사물, 입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게 하는 동력이 된다. 재료가 변화하는 과정과 손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흔적들은 하나의 이미지가 되거나, 오브제의 구조를 결정하는 조형적 요소로 작동한다.

최근의 작업에서는 전통 금속기법인 끼움입사를 주요 언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전통의 복원이나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 감각과 재료적 실험을 통해 확장된다. 고려시대에 정점에 달했던 끼움입사는 금속 표면에 미세한 홈을 파고 다른 금속을 끼워 고정하는 섬세한 기법이다. 작가는 이 기법을 통해 작은 금속 조각 위에 시간의 흔적을 새기고, 재료 간의 긴장과 균형, 표면에서 발생하는 서사를 드러낸다. 끼움입사는 과거의 기술을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손과 재료, 시간이 만나 형성되는 과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이다.

또한 동료 공예가, 현대 음악가, 영상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공예의 과정성과 시간성을 다른 감각의 층위로 확장하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작업을 이어가며 공예의 본질적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점차 명확히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공예의 시간성, 즉 *laufendes Ding*이라는 개념 아래 순간들을 해체하고 다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간의 결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앞으로도 재료와 신체, 기술과 감각, 전통과 현대가 만나 형성하는 복합적 층위를 탐구하며 공예가 지닌 서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